

창업생태계 활성화 2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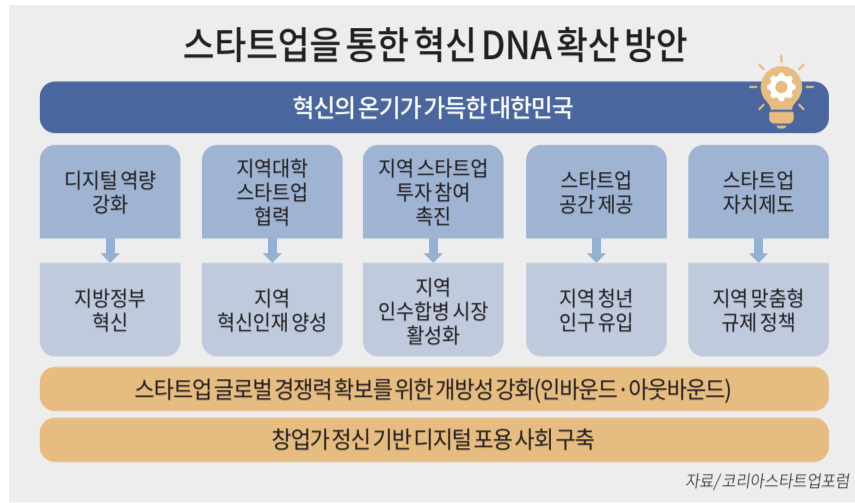
스타트업계, '벤처투자펀드 100조 조성' 등 정치권에 제안

코스포, 정책연구 자료집 발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 혁신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 확대 등 담겨

스타트업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벤처투자펀드 100조원 조성, 스타트업하기 좋은 '5대 거점 도시' 조성, '스타트업비자'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 확대 등의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따르면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 정책연구 자료집을 최근 발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 혁신으로 지방소멸 대응 ▲지역 스타트업 투자 생



태계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자유로운 외국인·자본 유입으로 창업·투자 활성화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신구 갈등 해결 등을 위한 내용이 두루 담겨 있다.

코스포는 우선 지방소멸을 해

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지방 비중을 50%로 늘리고, '디지털'을 통해 지방 정부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마다 부시장, 부군수 급으로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도입해 창

업·혁신 생태계를 지원하면서다.

'청년 코리빙' (coliving) 등 다양한 복지 관련 민간 스타트업 사업을 정부 예산 사업과 연계·유치해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이디어로 나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지역 민간 벤처금융 활성화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을 위한 제도 구축 ▲투자 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기업벤처금융(CVC) 육성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그러면서 지방정부 재정의 5% 수준을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

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 인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의 재직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 마련, 외국인 유학생 연계 플랫폼 구축 등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코스포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은 규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엑셀러레이터업계 "모태펀드, AC 투자 비중 더 확대해야"

엑셀러레이터협, 산업백서 발간
"AC위한 모태펀드 확대" 1순위
올해 정책 변화 대해 '부정' 많아

엑셀러레이터(AC)업계가 한국벤처투자 운영 모태펀드의 업계 투자 확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전체 모태펀드 가운데 5~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부문 투자로는 초기 창업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을 종합

적으로 제공하는 창업기획자를 말한다.

3일 (사)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가 최근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엑셀러레이터 산업백서'에 따르면 '올해 엑셀러레이터 생태계를 위해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25.4%가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모태펀드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이외에 ▲투자의무비율, 투자조건 등 규제 완화(20.4%) ▲세컨더리 펀드 등 회수시장 다각화(13.9%) ▲루키 엑셀러레이터 육성 정책 마련

(10%)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모태펀드의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지만 참여자를 더욱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초기 엑셀러레이터들은 레퍼런스가 없어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고 대형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펀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벤처시장에 또다른 마중물 역할을 하는 민간자금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모태펀드는 좀더

'모험적'인 분야 투자를 위해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에 따르면 모태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는 전체가 50~60곳 안팎으로, 가뜰이나 적은 투자금을 갖고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엑셀러레이터를 둘러싼 생태계 환경 변화와 관련해 업계는 큰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2.9%가 '변화없음'이라고 답했다. 특히 '부

정(매우 부정 포함)'이 29.8%로 '긍정(매우 긍정 포함)'(17.3%)보다 많았다.

아울러 투자와 관련해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LP확보)'와 '엑셀러레이터 전용 모태펀드 확대' 모두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보다 많았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엑셀러레이터 총 투자금액은 6671억원, 총 투자건수는 2377건으로 집계됐다. 총 투자기업 숫자는 1631개였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엑셀러레이터는 총 461개사다.

/김승호 기자

한국여성벤처협회

유망 여성스타트업 발굴

한국여성벤처협회가 '2024년 여성특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 스타트업을 24일까지 모집한다.

3일 여벤처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민간 창업기획자를 지정해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의 여성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연계와 맞춤형 창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벤처는 지난달 더인벤션랩, 김고스프링, 퍼스트게이트,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여성특화 전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팅)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20여개 여성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업 맞춤형 교육·멘토링, 1000만원 이상의 사업화 자금 지원, 협력네트워크 등 각 운영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3개사 이상의 직접(초기) 투자부터 스케일업을 위한 연계·후속투자까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기보, 기술혁신 종합지원체계 마련

기업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은행과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협약'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및 경영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 출연금 및 보증료지원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 필요기업에 보증료지원(0.5%p, 3년간)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고정보증료율(0.7%, 3년간) 및 보증료지원(0.7%p, 3년간) ▲아기유니콘 선정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및 고정보증료율(0.7%) 적용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를 초기·중기·성숙기로 세



김중호 기보 이사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분화해 총 7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지난해 4월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분야를 공동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책금융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장기·저리, 동행지원, 취약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왔다.

/김승호 기자

명품 글로벌 도시 조성해 지역소멸 방지

중기부, 글로벌 상권 창출팀 모집
첫해 55억, 5년간 최대 155억 투입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창의적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돕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사람을 끌어들이는 '글로벌 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이를 수행할 글로벌 상권 창출팀 등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해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얼마전 주재한 '제2차 우문현담 간담회'에서도 지역상권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석,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해

대표 성공모델인 '글로벌 상권'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신설한 '글로벌 상권 창출팀'과 '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 공모한다. 글로벌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상권이 되려면 매력적인 공간기획 외에도 창의적 소상공인 육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기존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 외 상권활성화사업, 매칭용자, 동네펀딩 등 10개 관련사업을 5년 내내 최대한 동시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도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한 팀이 돼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지원해야 하며,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 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

한편 로컬브랜드 창출팀의 경우 작년과 유사하게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